4월 27일 화요일

저녁 8시반~11시

와플반트

-

이제 13일 남았네요

앞으로의 계획은?

호연님. 벤치마킹 할 사이트를 하나 잡고, 최대한 공부하면서 만들어보기.

디자인 요소도 반영하고. 게시판 같은 부분은 고민 중. 테이블을 여러 개 만들어?

일단 러프하게 생각 중이고. 시간이 남는다면 더 도전해보자.

재민님. 저도 비슷한 생각! 지금까지는 정해진 코스를 따라서 수강했다면

기본적인 배경지식에, 롤모델을 하나 잡고 필요한 공부만 찾아서 하자.

그렇게 만들어 보자.

(스터디 하다가)

호연님은 사이트 하나를 잡고, 소스를 보면서 다 뜯어보는 중.

내일도 저녁 8시쯤에 만나기로 했습니다.

-

재민.

<http://jhlab.tistory.com/85>

<http://blog.kurien.co.kr/522>

<http://blog.naver.com/bb_/70171494813>

<http://blacky512.blog.me/10148711185> (댓글달기)

참고해서 게시판 만드는 방법 배우는 중!

가만히 보고 있는데… 오잉? 생각보다 무지 복잡하다

우어어어어어

공부하다가 떠올랐는데

간단한 워드프레스 식의 블로그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.

어차피 게시판 만드는 것과 같은 방식이지만, 조금 더 내가 바라는 모습인듯!

모든 게시글은 하나의 큰 DB에서 관리되고,

카테고리(분류) 값이 있어서 카테고리마다 글이 들어갈 수 있게!

(써놓고 보니 카테고리DB도 하나 있어야 겠다. 추가,수정,삭제가 가능하고

그 결과가 게시글에도 반영될 수 있게)

그리고 댓글도 하나의 DB를 만들어서

게시글 번호에 따라서 내용이 출력되도록!

관리 페이지에선

게시글 보기(전체/카테고리)

게시글 추가, 편집, 삭제 (카테고리 이동 등의 기능도 가능하게)

(아니다, 카테고리는 라디오버튼이 아니라 체크박스 식으로 여러개 선택할 수 있도록)

(기타 게시글을 볼 때, 어떻게 나타나는가도 바꿀 수 있게?)

음 여기에 회원관리까지 포함하면 딱일듯!

-

웹 애플리케이션 만들기.

기획-디자인-개발-테스트 … 그리고 반복

Start Small, 작게 시작해서 끊임없이 개선한다.

가장 필요한 부분의 개발부터, 작게 시작한다. -> 그래야 프로젝트가 안 망함.

(최소한의 중요한 기능부터) 복잡도를 감안해서, 작게.작게.

기획(어떻게 동작해야 하는가?)

UI 모델링 - 사용자가 시스템을 제어하는 조작 장치들.

손그림. Pencil(오픈소스 모델링도구), balsamiq(유료툴), 파워포인트.

리눅스 웹서버.

아파치 PHP MySQL.

Bitnami를 이용해서 한 번에 설치한다.

서버 제어.